

# 제례진설에 나타난 상징성의 재인식에 관한 연구

이철영\*, 박채원\*\*  
동국대학교\*, 한성대학교\*\*

## A Study on the Re-recognition of symbolism in Ancestral Memorial Rites Arrangement

Chul-Young Lee\*, Chae-Won Park\*\*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Hans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전통사회와 현대를 이어주는 제례(祭禮)가 의례(儀禮)의 전승(傳承)이라는 관점에서 제례진설에 나타난 상징성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통의례의 삶과 죽음에 대한 유교적 생사관과 사상적 바탕이 되었던 음양오행론, 우주구조의 이해와 사시(四時)의 변화로 나타난다. 제사상의 진설이 조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징체계를 통해 산 자와 죽은 자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소통하는 의례적 도구로 이해하였다. 또한 사계절과 하늘·땅·지하의 공간을 제수(祭需)의 선정과 배열을 통해 상징화하고 구체화하였다. 현대 제례진설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대상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제물이 기능적 역할 뿐만 아니라 제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시·공간적 상징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례진설에 나타난 사상적 배경과 상징체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례문화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제례진설, 음양오행론, 진설의 상징성, 조상숭배, 유교적 생사관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meaning of symbolism in ancestral memorial rite arrangement from the view that ancestral worship connecting traditional society with modernity are the transmission of ritual. It appears as a change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that became the basis and ideology about the Confucian view of life and death, an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structure, and a change in the four seasons.

Ancestral memorial rite arrangements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ancestors. And it is understood as a ceremonial instrument which the living and the dead communicate spatially with time through the symbolic system. In addition, the four seasons, spaces of the skyground and underground were symbolized and embodied through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ancestral memorial rites. In the modern ancestral memorial rite arrangement,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location require Time-space analysis of the target. This is because the offering is understood not only as a functional role but also as a temporal and spatial symbolism to be expressed through the offering.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consider it from the perspective of inheritance of ancestral worship culture through discussions about the ideological background and symbolic system that appeared in ancestral memorial rite arrangement

**Key Words** : ancestral memorial rites arrangement, Yin-yang, symbolism of ancestral memorial rites arrangement, ancestral worship, confucian view of life and death

Received 17 Oct 2022, Revised 20 Oct 2022

Accepted 25 Oct 2022

Corresponding Author: Chae-Won Park  
(Hansung University)

Email: pcw9806@daum.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인류에게 의례(儀禮)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형화된 형식을 통해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어느 사회나 대표적인 의례는 일생의례(一生儀禮)이며, 그중에서도 죽음의례인 상례(喪禮)는 의례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삼년상(三年喪)이라는 긴 상기(喪期)가 변경되어 장례식장에서 3일 만에 탈상(脫喪)을 하는 등 의례를 구성하는 사·공간적 이해와 상징체계가 변화되어 사자의례(死者儀禮)로 전락한 장례(葬禮)만이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제례는 죽음 이후 자손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의례의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전통사회와 현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를 사는 대다수의 한국인이 설과 추석에 차례를 위해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의례의 원형성(原形性)과 정신을 유지하는 의례로 제례가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례는 생(生)의 공간과 죽음(死)의 공간을 연결하는 의사소통 창구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며, 조상과 자손을 이어주는 시간적 한계의 벽을 허무는 문화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례의 중요성에 비해 현대 우리사회의 인식은 의례의 필요성보다는 전통 의례의 계승이라는 관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는 제례의 절차와 제물의 진설 등 의례의 외형적 형식과 변화양상 또는 제례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철학적 이해를 통해 동시대의 조상제례에 내재된 의식세계의 이해를 주된 논점으로 연구되어왔다. 반면, 현장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는 의식세계의 이해와 조상제례의 절차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속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의례적 상징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 예학적 연구와의 교류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의례의 삶과 죽음에 대한 논의인 유교적 생사관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제례의 외형적이며 정형적 성격을 가진 제례진설에 주목하여 그 속에 나타난 사상적 배경과 상징체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례문화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제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제의례 구성 요인과 상징성

### 2.1 사후세계의 시·공간적 이해

조선의 개국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신유학자들은 유교사회의 확립을 위해 도입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생활의례로 일상적 패러다임을 유교화[1]하였고 행동 기준의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사회적 질서의 규범으로 행동의 표준적 절차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교적 제의의 구성과 절차를 확립하게 된다. 이후 각 시기의 시대정신과 결합하면서 도입·확대·정착의 과정을 거쳐 조선의 의례 전범으로 안착하여 21C인 오늘날에도 기반을 튼튼히 하고 있다. 그 중 유교적인 도덕, 규범, 사상, 제도의 종합적인 산물로서 제례는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의례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대 사람들이 의례화의 과정에서 도입한 상징체계로서의 생사관과 우주질서적 세계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의례에서 나타나는 상징체계는 사건, 물건, 활동, 관계, 몸짓, 공간적 단위 등으로 표현된다[2]. 사람들은 의례에 나타나는 상징체계를 통해 의례적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관계를 창조·유지해나간다. 현재 우리나라 의례의 기본 바탕에는 『주자가례』에 의한 의례화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고대인의 생사관과 우주질서적 세계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제례가 산자들의 세상과 죽음 이후 세상과의 소통과정이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통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대 사람들이 인식한 생사관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논의인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은 계세사상으로 정립하였다.

계세사상은 ‘사(死)’가 ‘무(無)’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생(生)을 계속한다고 생각하는 고대인의 가장 단순한 죽음에 대한 신앙이다. 계세사상은 사후에도 육체와 영혼이 함께 매장된 지하에서 현세에서의 공죄(功罪)와 관계없이 현세와 동양(同樣)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계속한다. 따라서 사후세계(冥界)도 현세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사(死)는 다만 현세에서 명계(冥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고대인들이 장의(葬儀)에 고무작요(鼓舞作樂)하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음은 사실상 사(死)에 대한 신앙에서

기인된 것[3]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계세사상의 개념은 현세와 사후세계를 동양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계속하는 세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 = 사후세계’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의 단초는 고대 중국의 신화집이자 지리서인 『산해경(山海經)』에서 세상의 구성에 대해, “땅은 육합(六合)의 사이에 놓여 있고, 사해(四海)에 둘러싸여 있다. 일월(日月)이 땅을 비추고, 별들이 경영을 하며, 사시(四時)를 다스리며, 태세(太歲)로 감겨있다.”고 하였다. 『산해경』에서는 하늘 공간이 육합(六合)의 방위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그 공간의 구성이 전·후·좌·우의 사방과 위(上), 아래(下)의 여섯 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대지는 사방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하늘의 해와 달, 별로 인해 계절이 변화되면서 만물이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한(前漢) 초기까지 유일한 과학적인 우주구조론은 개천설(蓋天說)이었다. 왕충(王充)은 개천설에 대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고 위아래에 위치하여 북극에 그 중심을 둔다.”[4]고 하였다. 즉, 하늘이 땅을 덮고 있다는 논리의 우주구조론 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천설과 관련하여 육합(六合)의 개념을 확장하여 정리한 개념이 천원지방의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주에 대한 이해는 당시의 천체를 관측한 기구인 ‘혼천의(渾天儀)’에서도 알 수 있는데, 중국에서의 제작한 혼천의의 제작과 관련하여 변천 과정이 서술된 『혼천의설(渾天儀說)』 [5]에 혼천의는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한 우주의 공간적 개념에 속한 하늘의 별자리 위치를 확인하고 변화과정을 통해 계절을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변화과정을 표시한 것이 천문도(天文圖)이다. 우주에 대한 공간적 이해로 제작된 천문도는 하늘을 둥근 모양으로 표현한 원도(圓圖)로 제작되었고, 그 속에 별자리를 배치하고 태양의 운행주기인 황도(黃道)를 그려 넣어 시간과 공간의 구성과 변화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동양천문도의 모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각천문도인 다음의 순우천문도(淳祐天文圖)와 우리나라의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의 구조를 ‘천원지방(天圓地方)’의 형태로 인식하였고,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 시간을 구분하여 사시(四時)와 절

후(節候)를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후세계에 대해 계세사상의 논리적 근거와 천원지방의 우주 구조론적 이해는 우리의 무덤형태가 복발형(覆鉢形)의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계세사상의 논리로 인해 삶을 영위하는 이승의 형태가 천원지방의 형태였다면, 사후세계인 저승의 형태 역시 같은 형태를 가진 세상으로 동일한 상징체계를 통해 의례적으로 상호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 2.2 시·공간의 상징체계 이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논리의인 천원지방의 우주 형태로 인식되었음을 알았다. 이러한 우주 구조에 내재된 질서와 순환논리를 통해 그 속에 담긴 논리와 상징 체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순자(荀子)』 천론편(天論篇)에서는 “별들이 나열하여 도는 것을 따르고, 일월이 번갈아 비추며, 네 계절이 교체하는 것 등이 음양의 변화이다.”(『荀子』 11卷)라 하였고, 사시편(四時篇)에서는 “음양(陰陽)은 하늘의 이치 중에 큰 이치요, 사시는 음양의 큰 줄기이다.”(『管子』 40卷)라고 하였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陰’에 해당하는 문자는 ‘구름에 가려 해를 볼 수 없는 것’(『說文解字』, 陰; 闇也. 水之南, 山之北也. 從自隸聲)을 뜻하고, ‘陽’에 해당하는 문자는 ‘구름이 걷혀 해를 볼 수 있는 것’(『說文解字』, 陽; 高, 明也. 從自易聲)을 의미할 뿐이었다.

또한 『시경(詩經)』에서 ‘陰’은 ‘어둡다’, 혹은 ‘덮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陽’은 ‘방위, 햇빛, 따뜻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음양’에 대한 최초의 의미는 태양의 향배나 이에 따른 방향, 어둠과 밝음의 자연현상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논리가 후대에 이르러 ‘음양’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陰 ⇒ 陽’으로 ‘陽 ⇒ 陰’으로 변화되는 과정속에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면서 ‘음양’을 고정된 관념이 아닌 변화하는 현상으로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미도 ‘밝고, 어둡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낮과 밤의 변화, 계절의 주기, 나아가 시간의 변화과정’을 의미하게 되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 것[6]으로 보여진다.

『주역(周易)』의 계사전 상(繫辭傳 上)에 “한번 陰하고 한번 陽한 것을 이르러 도(道)라고 한다.”(『周

易』繫辭傳 上：一陰一陽之謂道)고 하였는데, 이는 ‘음양’의 개념이 서로 단절, 대립, 투쟁하는 관계가 아닌 변화하는 과정에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철학적 개념으로 확대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전국시대의 음양 개념이 기후와 기상의 의미를 넘어서서 ‘계절 변화의 요인, 사물의 질서를 유지하는 형평의 원리, 사시의 변화 작용, 자연적 변화’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활용[7]되는 등 그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음양의 논리체계를 인간윤리의 질서 확립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임금과 신하, 지도자와 피 지도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등으로 구분하고 음양론에 의거하여 상하와 내외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때 양의 기운은 능동적이고 陰의 기운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陰은 陽의 움직임에 따라 순응하고 협력하려는 속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陰은 스스로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말고 陽을 밟고 따르는 윤리를 강조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만물의 성질과 상태를 나누는 두 범주의 개념으로써 ‘陰’은 여성인 것, 수동성, 추위, 어둠, 습기, 부드러움을 뜻하고, ‘陽’은 남성적인 것, 능동성, 더위, 밝음, 건조, 굳음을 뜻하게 된다.

송대(宋代)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음양의 대대성 구성이 완전한 정반대이면서 동시에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天과 地는 음양이 서로 정반대이지만, 天이 없다면 地는 성립하지 못하며 地 없는 天도 존재할 수 없다.[8] 이러한 음양관계를 분석하여 ‘음양대대적 논리’로 개념화하여 정리한 바에 의하면, 첫째, 대대(對待)는 상반적인 타자를 적대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로서 요구한다. 둘째, 음양은 서로가 상대방을 머금은 관계로 나타난다. 陽 속에 이미 陰이 있고 陰 속에 이미 陽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셋째, 음양의 상반적 혹은 모순적 관계를 배척적(排斥的)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감응과 성취의 관계 나아가 추동력의 근거로 보는 상반상성(相反相成)의 논리를 갖는다.[9] 서로 반대인 동시에 서로에 의존하는 ‘대대관계’는 반대이지만 모순 충돌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켜 주는 관계란 점에서 서양의 이분

법이나 실체론적 사유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동양적 관계 논리를 대표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오행(五行)’의 개념은 오늘날 ‘사물을 이루는 다섯 가지 기본요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오행론’ 성립 초기의 ‘오행’은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다섯 가지의 필수 불가결한 생활재료를 가리키며,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 재료와는 구별되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 것이었다.

‘오재(五材)’의 개념은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는 기존의 다섯 가지 재료의 의미만을 나타냈었는데, 「홍범(洪範)」에 나타난 오행은 ‘수(水)는 물건을 적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성질을 가졌으며, 화(火)는 물건을 태우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졌으며, 목(木)은 굽기도 하고 곧기도 하는 성질을 가졌으며, 금(金)은 변화하는 성질을 가졌으며, 토(土)는 식물을 심으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성질을 가졌다’(『尙書』「洪範」)고 하였다. 「홍범」에서 논의한 오행의 개념에는 성질과 특성만 나타나 있어 오재(五材)의 의미가 강하고 순서나 과정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金·木·水·火·土라는 기본물질의 의미나 성질이 아닌 ‘순서’와 ‘차례’의 의미가 중시되면서, 전국시대 말기와 한대에 오행은 ‘영원히 순환 운동을 하는 5개의 기본적인 힘’으로 파악되기 시작하였다. 오재라는 명칭으로 ‘순서’와 ‘차례’의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行)’의 의미를 포함한 ‘오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오행의 개념에 순서와 차례를 부여하고 순환운동을 하는 5개의 기본적인 힘으로 이해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세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동일한 존재원리에서 출발한 다른 표상 체계이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음양을 논할 때 오행을 이해해야 하며, 오행을 논할 때는 음양과의 관계를 이해[10]해야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의 논리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이해와 관련하여 한대의 동중서(董仲舒)는 ‘천지(天地)의 기(氣)는 합쳐져서 하나가 되고, 나뉘어서 음양이 되고, 쪼개져서 사시(四時)로 되고, 나열되어 오행(五行)이 된다.’(『春秋蕃露』「五行對」)고 하여 음양과 오행의 논리가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으며, 또 ‘水는 겨울이 되고, 金은 가을이 되고, 土는 늦여름이 되고, 火는 여름이 되고, 木은 봄이 된다.’

(『春秋蕃露』 「五行對」)고 하여 오행을 사계절의 운행에 배속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음양의 변화를 통해 시간적으로 四時로 변화되고, 공간적으로 나열되어五行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양과 오행의 논리가 분석적이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되어 상호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세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행의 논리는 음양의 논리를 보완하거나 확장하는 개념으로 쓰이게 되면서 계절의 변화되는 과정, 시간관념의 기준인 간지(干支), 방위관념인 사방(四方)의 방위, 색(色)의 개념 등도 오행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표 1 오행 비교표>와 같다.

이러한 음양오행론의 유교적 윤리규범의 확대는 송대에 이르러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더욱 강조되었고, 성리학의 대학자 주자(朱子)는 그의 예서인 『주자가례』에 이러한 논의가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표 1. 오행 比較表>[11]

구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육신(六神)	청룡(靑龍)	朱雀(朱雀)	구동등사(句臆騰蛇)	백호(白虎)	현무(玄武)
오물(五物)	초목(草木)	열광(熱光)	산전(山田)	금석(金石)	강해(江海)
방위(方位)	동(東)	남(南)	중앙(中央)	서(西)	북(北)
계절(季節)	춘(春)	하(夏)	사계(四季)	추(秋)	동(冬)
색소(色素)	청벽(靑碧)	적자(赤紫)	황강(黃降)	백울(白粟)	흑록(黑綠)
오격(五格)	곡직(曲直)	염상(炎上)	가색(稼穡)	종혁(從革)	윤하(潤下)
천간(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申	壬, 癸
지지(地支)	寅, 卯	巳, 午	辰, 戌, 丑, 未	申, 酉	戌, 亥

### 3. 제례에 나타난 상징성 이해

#### 3.1 제례에 나타난 상징체계

제례의 역사와 의례 구조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은 『주자가례』의 도입이다. 조선이라는 새

로운 왕조의 의례적 기준을 제공하였던 『주자가례』에 나타난 제례의 의례적 특징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상징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자가례』에 나타난 제례의 종류를 살펴보면, 사시제(四時祭)·초조제(初祖祭)·선조제(先祖祭)·네제(禰祭)·기일제(忌日祭)·묘제(墓祭)의 여섯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례의 대상과 진행 시기와 관련하여 “초조제는 가문의 시조(始祖)에게 지내는 제사로서, 시조를 잇는 대종손(大宗孫)이 제주(祭主)가 되어 동지에 지낸다. 동지는 일양(一陽)이 비로소 생(生)하는 날로써, 시조는 가문을 있게 한 시초이기 때문에 양기(陽氣)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때에 제사지내는 것”(『朱子家禮』 祭禮篇)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선조제는 사당에 모시지 않는 초조(初祖, 始祖) 이하 고조(高祖)이상의 선조에 대해 대종손(大宗孫) 또는 소종손(小宗孫)이 제주가 되어 입춘에 지내는데, 입춘은 만물이 생명을 움트기 시작하는 때(生物之始)로써 이 또한 선조의 형상이 만물이 소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때 제사를 지낸다.”(『朱子家禮』 祭禮篇)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네제는 “아버지에게 지내는 제사로, 계추(季秋)인 음력 9월에 지내는데, 계추가 만물이 성숙하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그 유사함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것”(『朱子家禮』 祭禮篇)이라 하여 제례 대상에 대한 의례적 실천 논리를 우주질서의 시간적 변화 논리와 대비하여 이해함으로써, 제사의 상징체계가 천지자연(天地自然)의 변화를 인식하고 의인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례의 상징체계는 조상을 대신하여 제례의 대상으로 상징되는 신주(神主)의 제작에 있어서 우주질서의 시간적 변화뿐만 아니라 공간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정자가 말했다. 신주를 만드는 데는 밤나무를 쓴다. 사방 4치, 두께는 1치 2푼이다. 바닥에 구멍을 뚫어 신주의 몸을 끼운다. 몸체는 높이가 1자 2치이고 너비가 3치이며 위 5푼을 깎아내어 머리를 둥글게 한다.”(『朱子家禮』 祭禮篇)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변통고(喪變通攷)』에서 “사방 4치는 『이정전서(二程全書)』에 한 해의 네 계절을 본떴다. 두께는 1치 2푼인 것은 『전서(全書)』에 하루의 12시간을 본떴다. 몸체는 높이가 1자 2치인 것은 『전서』에 열두 달을 본떴다. 너비가 3치인 것은 『전서』에 30푼은 한 달의 날수를 본떴다.”(『喪變通攷』 治葬條 卷15)

고 하였다. 신주의 제작과정에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우주의 구조와 질서에 대한 시·공간적 이해를 함축적으로 상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례구조에 나타난 상징성 뿐만 아니라 절차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강신(降神) 절차에서 뇌주(酌酒)와 분향(焚香)의 절차로, 제례의 대상인 조상신을 모시기 위한 절차이다. 강신에서 의례적 행위로 표현되는 뇌주와 분향은 유교적 생사관을 통해 죽음을 혼(魂)과 백(魄)으로 분리되어 기(氣)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氣로 승화된 魂을 모시는 절차인 분향과 하관(下棺)하여 땅에 묻힌 魄의 氣를 불러 모시는 절차인 뇌주를 통해 혼백으로 분리된 氣를 습하여 좌정시키고 조상신으로 대상화 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례의 종류와 진행 시기, 신주의 제작과정, 그리고 절차에 나타난 의례적 상징성에는 유교적 우주질서 원리에 대한 이해의 바탕으로 하는 천문에 대한 이해와 상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통사회를 구성한 논리체계에서 우주질서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게 그리고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은 자와 산자와의 소통에도 우주질서는 존재하며 그 중심에 천문에 대한 이해와 운행과 해석의 논리로서의 음양오행론이 존재한다. 이처럼 제례의 근본개념과 실천에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우주 질서와 생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례적 상징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례의 성립과 정착, 전승의 과정에 우주질서인 천문과 음양오행으로 연결된 우주질서의 이해가 상징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반하여, 제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제사상의 진설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다른 논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3.2 제례진설의 상징성 분석

제례진설의 상징성에 대한 논의와 해석을 살펴보기 위해 진설과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천산양수(天産陽數) 지산음수(地産陰數)라 하여 하늘에서 생산되는 제물은 홀수로 땅에서 생산되는 제물은 짝수로 진설의 양을 표현한 것이거나, 홍동백서(紅東白西),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해(左脯右醢) 등 진설 제물의 색깔이나 성질을 좌우 또는 동서로 구분하여 진설하기

도 한다. 또한 ‘과일에도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대추는 씨가 하나이므로 임금, 밤은 한 송이에 세 톨이 들어있으니 삼정승, 배는 씨가 6개니가 육판서, 감은 씨가 8개이므로 팔도를 뜻한다는 속설은 제사상의 과일을 나라의 통치구조와 그대로 연결 짓고 있음을 뜻한다. 과일에 국가의 통치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제사상의 과일은 위계질서가 엄격하게 잡히고 가치의 경중이 고려된 모든 과일로서 상징적 비약을 하고 있는 셈이다.’[12] 라고 하여 제례진설에서 과일의 선정과 배치에 국가 통치구조의 논리를 반영하여 진설한 것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제례진설의 이론적 근거는 송대(宋代) 주자에 의해 저술된 『주자가례』에 의한 것임은 물론 조선의 예학 역시 『주자가례』의 실천논리로서 발전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황제국(皇帝國)의 지위에 있던 송나라에 왕과 삼정승, 육판서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버린 논의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예학(禮學)의 기준을 제공하였던 『주자가례』와 『사례편람』의 제례진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위(神位)					
반(飯)	잔반(盞飯)	시접(匙楮)	초채(醋菜)	갱(羹)	
면(麵)	육(肉)	적(炙)	어(魚)	병(餅)	
포(脯)	숙채(熟菜)	청장(淸醬)	해(醃)	침채(沈菜)	
과(果)	과(果)	과(果)	과(果)	과(果)	과(果)

[그림 1 『朱子家禮』 陳饌圖]

신위(神位)					
반(飯)	잔반(盞飯)	시접(匙楮)	초접(醋楮)	갱(羹)	
면(麵)	육(肉)	적(炙)	어(魚)	병(餅)	
포(脯)	소(菜)	장(醬)	침채(沈菜)	해(醃)	식채(食醃)
과(果)	과(果)	과(果)	과(果)	과(果)	

[그림 2 『四禮便覽』 陳饌圖]

먼저 『주자가례』의 진설에 대한 설명은 “과일 6품, 소채·포·해 각각 3품, 어·육·면식·떡 각각 1盤, 갱·반 각

각 1椀, 간(肝) 각 1串, 육 각 2串하여 진설한다. 진설 방법은 과일은 남쪽 끝에 진설하고, 소채·포·해는 다음 줄에 서로 사이를 두고 진설하고, 잔과 초접은 북쪽 끝에 진설하는데, 잔은 서쪽에 접은 동쪽에 시저는 중간에 진설한다. 고기는 잔반의 남쪽, 면은 고기의 서쪽, 물고기는 초접의 남쪽, 떡은 물고기의 동쪽, 국은 초접의 동쪽, 밥은 잔반의 서쪽에 진설한다.”(『朱子家禮』)고 하였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예서(禮書)라고 할 수 있는 『사례편람』의 제례진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진설방법은 과일은 남쪽 끝에 진설하고, 소채·포·해는 그 다음 줄에 서로 사이를 두고 진설하고, 잔과 초접은 북쪽 끝에 진설하는데, 잔은 서쪽에 접은 동쪽에 시저는 중간에 진설한다. 고기는 잔반의 남쪽, 면은 고기의 서쪽, 물고기는 초접의 남쪽, 떡은 물고기의 동쪽, 국은 초접의 동쪽, 밥은 잔반의 서쪽에 진설한다.”(『四禮便覽』)고 하여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례진설의 논리인 홍동백서(紅東白西),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해(左脯右醢) 등 제수(祭需)의 색깔이나 성질을 동·서·좌·우로 구분하여 진설하는 방법이 『주자가례』나 『사례편람』과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선행연구에서 진설음식의 비밀상성만을 강조한다거나, 이승과 저승이 반대의 개념이라는 보편적 인식하에 진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비밀상성이나 반대 개념이라는 보편적 인식의 근거 밝히고 있지 않다. 보편적 인식이라고 한다면 유교 발생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보편적 인식이 되어야 맞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진설의 질서를 해석과정에서 언급하는 보편적 인식은 분명 우리의 자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설과 절차 그리고 각각의 상징성에 나타난 보편적 인식을 따르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4. 제례진설의 시·공간적 상징성 이해

##### 4.1 제례진설에 나타난 시·공간적 상징성

제례진설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의 제한성을 벗어나 다양한 해석과 새로운 시각에서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고 제례의 의례적 가치에 대한 논의와 유교적 생사관과 유교적 시공간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필요한 시기이다.

조선시대 대표적 예서인 『주자가례』와 『사례편

람』의 진설에 설명된 제물은 반(飯)과 갱(羹), 면(麵)과 병(餅), 육(肉)·적(炙)·어(魚), 포(脯)와 숙채(熟菜), 청장(淸醬)과 해(醢)와 침채(沈菜) 그리고 과(果)의 13종을 진설하고 있다.

진설제물을 동물성 제물과 식물성 제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동물성 제물은 갱(羹)·육(肉)·적(炙)·어(魚)·탕(湯)·포(脯)·해(醢)이고, 식물성 제물은 반(飯)·초채(醕菜)·면(麵)·병(餅)·숙채(熟菜)·청장(淸醬)·침채(沈菜)·과(果) 등이 된다. 이들 진설제물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면, 우주구조와 질서에 대한 시간변화의 관점과 『계몽편(啓蒙篇)』 「천편(天篇)」에 “봄이면 만물이 처음 생겨나고, 여름이면 만물이 자라난다. 가을이면 만물이 익게 되고, 겨울이면 만물이 단하고 감추어진다. 그런 즉 만물이 나서 자라고 거두어 감추어지는 까닭은 네 계절의 공이 아닌 것이 없다.”(『啓蒙篇』 「天篇」)고 하여 사시(四時)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만물이 변화되는 과정을 연계하여 생장수장(生長收藏)의 단계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시의 변화에 따른 식물의 변화과정이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열매 맺고 가을에 익어 수확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제례의 진설과 비교하면 과(果)에서 시작하여 숙채(熟菜)를 거쳐 열매인 반(飯)이 되고 이는 다시 삭힌 침채(沈菜)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동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생명을 씨앗에 저장하는 단계를 겨울로, 양분이 부족하고 성장하는 모양을 말린 고기인 포(脯)를 봄으로, 그리고 여름에 풍부한 먹이를 먹고 성장하는 단계를 물을 넣고 끓인 갱(羹)으로, 마지막으로 가을에 겨울을 준비하고 성장이 멈춘 상황을 삭힌 해(醢)로 이해함으로써 사시의 계절적 변화에 따른 동물과 식물이 성장과 소멸하는 과정을 연결하여 상징화하여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계절과 제물과의 관계성, 그리고 상징성을 포함하여 도표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계절/제물의 상관성〉

구 분	겨울	봄	여름	가을
식물성제물	과(果)	숙채(熟菜)	반(飯)	침채(沈菜)
동물성제물	과(果)	포(脯)	갱(羹)	해(醢)
상징성	씨앗(藏)	발생(生)	발전(長)	소멸(收)

이를 품목별로 분석하면, 반(飯)은 벼의 열매로 흰색이고 불로 익힌 화식(火食)이며 주식이다. 갱(羹)<sup>1)</sup>은 국물이 적은 채소가 섞인 고깃국으로 화식이고 국물이 있다. 두 제물의 특징은 불로 익힌 주식이며 국물이 있는 국과 밥이다. 그러나 진설에서는 일상적인 밥과 국의 위치와는 달리 반대로 진설하였다.

다음은 면(麵)과 병(餅)은 같이 쓰는데 의례적 특별식으로 면은 삶아 국물 없이 고평을 얹어서 쓰며, 병은 떡을 말하고 고임을 한다.

숙채는 시금치나 취나물은 청색으로 잎나물이며, 고사리는 적색으로 줄기나물이며, 도라지 또는 무나물은 백색으로 뿌리나물이다. 숙채는 식물의 구성인 뿌리, 줄기, 잎을 상징화하여 진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비되는 침채는 김치로 삭힌 저장 채소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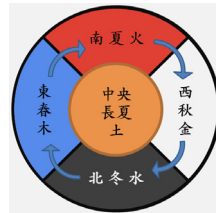
포(脯)는 건조하여 말린 고기로 어포와 육포를 쓰며 대비되는 개념의 해(醢)는 해(醢)와 다른데, 해(醢)는 것갈을 말하는 것으로 삭힌 고기를 뜻한다.

정중앙에는 육(肉)·적(炙)·어(魚) 중 적(炙)은 제상이나 큰 상에 올릴 때 구이를 가리키는 말로 대개 우모린(羽毛鱗)의 배열로 하늘, 땅, 바다의 순서로 적 틀에 고여 진설한다. 어육(魚肉)은 가축이나 야생의 짐승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쓰는데, 살코기에 뼈가 붙어있는 것은 효(脩)이고, 날고기를 잘게 썰은 것이 회(膾)이며, 크게 썰은 것은 헌(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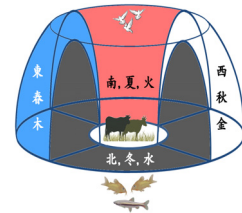
과(果)는 육과를 진설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율시이(棗栗柿梨)와 조과(造菓)를 쓰는데, 대추는 적색이고, 밤은 백색의 열매이며, 감은 적색의 껍질을 배는 백색으로 모두 씨앗이다.

진설제물에서 동물성 제물과 식물성 제물을 살펴보면, 동물성 제물은 육(肉), 적(炙), 어(魚), 탕(湯)이고, 식물성 제물은 초채(醃菜), 면(麵), 병(餅), 청장(淸醬)이다. 이 중 적(炙)의 배열이 '우모린(羽毛鱗) 곧 바다·육지·하늘로 이루어진 우주적 질서의 상징'[13]으로 이해하고 있어 육(肉)·적(炙)·어(魚)의 배열이 공간적 구분에 의한 배열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면(麵)식과 병(餅)식은 특별식(特別食)으로 면(麵)이 삶아내어 먹는 국수라면 병

(餅)은 찌서 가공한 떡이기 때문에 봄과 가을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제례의 진설에서 제수의 품목의 상징적 의미와 위치 등을 통해 사계절의 변화를 나타냄으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四時 概念圖]



[그림 4 四時/空間 區分]



[그림 5 祭禮陳設 分析圖]

즉 제례진설에서 시간적 변화는 계절에 따른 진설제물의 상징적 변화를 통해 표현하였고, 공간적 변화는 가운데 동물을 우모린(羽毛鱗)의 순서로 배열하여 나타내고 있다. 계절에 따른 진설의 내용은, 겨울에는 모든 생명의 근본을 상징하는 과(果)를 진설하였는데 자연에서 얻는 과일 4종과 조과(造菓) 2종을 포함하여 육과(六果)를 진설하여 모든 생명이 씨앗에 있으며 겨울이 계절의 시작임을 의미한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적 특성을 식물성 제물인 숙채(熟菜)와 동물성 제물인 포(脯), 특별식인 면식(麵食)으로 진설하였다. 동물성 제물인 포(脯)에는 어포(魚脯)와 육포(肉脯) 등을 함하여 찌서 육류와 어류를 구분하였다. 특별식인 면(麵)은 밀을 가공하여 삶아 먹는 의미로 떡(餅)과 대비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여름에는 화(火)의 기운을 상징하는 화식(火食)으로 반(飯)과 갱(羹)을 진설하였는데, 식물성 제물인 반(飯)

1) 갱(羹)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윤서석(尹瑞石)의 『증보산림경제』에서 갱(羹)은 국물이 적은 국이라 하였던 해석과, 기원전 3세기경의 중국의 시집 『초사(楚辭)』에서 갱(羹)은 채소가 섞인 고깃국이라 하였던 것을 참고하였다.



은 화식으로 열매를 상징하고 갱(羹)은 동물성 제물로 육류를 넣어 끓인 국의 형태로 진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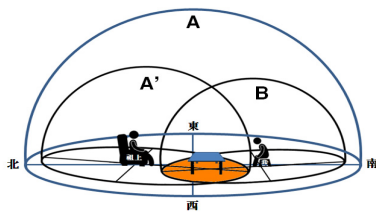
열매가 익어 수확하거나 자연에서 썩는 의미의 가을에는 동물성 제물로는 해(醢)를 식물성 제물로는 삭힌 채소류인 침채(沈菜)를 그리고 면(麵)과 대비되는 특별식으로 떡인 병(餅)을 진설하였다.

제례의 종류에서 대상별 제례의 시기를 우주의 변화 논리와 신주의 제작과정에 우주의 구조와 질서에 대한 시·공간적 이해를 함축적으로 상징화하여 제작하였던 점, 제례에서 혼백(魂魄)을 부르는 강신(降神)을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설에서 우주의 시·공간적 변화를 상징화하여 진설하여 그 해석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 4.2 제례진설에 나타난 공간의 이해

제례의 종류와 진행 시기, 절차는 물론 진설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였던 우주질서에 대한 지식을 상징화를 통해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사상의 방위배치가 일반적인 방위의 개념과는 상반된 논리로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상적 공간의 개념과 서로 상반된 공간배치 구조를 갖는 제사상의 방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사상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던 삶과 죽음의 공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제례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 공간은 일상적인 공간을 제외하고 총 3개의 공간이 존재한다. 첫째는 조상신의 공간이고, 둘째는 집례자의 공간구성이며, 마지막으로 제사상의 공간구성이다. 이러한 공간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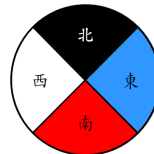


[그림 6 제례의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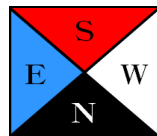
[그림 6 제례의 공간구조]에서 나타난 일상적인 공간 구조는 동서남북 사방(四方)으로 고정되어 불변하는 공

간 'A'이다. 이러한 공간 속에 조상신의 공간인 'A'와 집례자인 자손의 공간 'B'가 존재한다. 이중 조상신의 공간은 'A'로 일상적인 공간과 같은 배치이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유교의 생사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상신은 사후에 기(氣)로 변화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사방의 방위 개념과 같이 일상의 공간구조 속에 조상신의 사후 공간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존재하게 된다. 이는 생(生)과 사(死)의 공간이 같다는 의미가 된다. 조상의 공간개념과 대비되는 관점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집례자인 후손의 공간이 존재한다. 삶의 공간에 존재하는 집례자인 후손의 공간은 육합(六合)의 개념으로 자신의 위치에 따라 공간의 구조가 변경되게 된다. 즉 자신이 상위의 위치라면 성인남면(聖人南面)의 개념에 따라 남향으로 자리하지만, 자신이 하위의 위치라면 반대로 북면하게 되는 가변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조상신을 모시는 제례에서의 공간은 상위 개념의 조상신과 이를 마주 대하는 하위 개념의 집례자 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만약 조상신과 집례자가 같은 공간구조를 가진다면 두 대상은 서로 마주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된다. 결국 일상적인 공간 개념을 포함한 조상신의 상위공간구조와 조상신을 공경하는 집례자는 하위공간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일상의 공간개념과 반대의 공간구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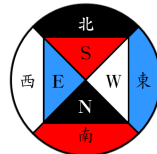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사상 진설에 따른 공간구조가 존재한다. 제사상의 진설은 하늘·땅·물 속 등 만물의 변화양상을 사계절의 변화를 시·공간적 상징성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느끼고 설명하는 것은 집례자의 관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집례자의 시각에서 공간구조가 완성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집례자의 공간구조인 'B'의 공간구조가 제사상을 통해 상징화되어 표현된 것이 제례진설이다. 이를 방위개념에 의한 공간 구분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일상의 방위]



[그림 8 제사상 방위]



[그림 9 전체방위]

즉 [그림 7 일상의 방위]는 일상적 공간구조와 조상신의 공간구조를 나타내고, [그림 8 제사상의 방위]는 일상적 공간구조와 대대(對待)의 관점에서 배치된 집례자의 공간구조와 제례진설의 공간구조를 나타낸다. 이상의 공간구성을 통합하여 설명한 [그림 9 전체방위]는 일상적 공간구조 속에 조상신과 집례자의 공간이 어떤 관계에 의해 배치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제례진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제례진설은 집례자의 공간개념을 확장하고 조상신과 후손인 집례자의 공간이 구분되면서 각각이 공간을 인정하되 공존하는 대대의 개념으로 상징화된다. 이러한 공간의 상호구조는 '대립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 상대가 존재에 의하여 비로소 자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관계, 음양의 대대성에 대한 개념으로 수용하여 발전시킨 송대유학(宋代儒學)의 중요한 성과로 주목할 수 있다. 즉, 대대(對待)란 상대의 존재에 의해서 서로 공존하는 관계이며, 하나의 존재가 그것이 아닌 어떤 것과 의존적 관계라고 할 때 대대적 관계란 결과적으로 상호의존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제례진설의 공간구조와 방위개념에서 조상신과 집례자의 관계가 이러한 대대(對待)의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단순히 음식을 배치하는 관점이 아닌 조상신과 집례자로 대별되는 사후세계의 공간과 현세의 공간이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에 의해 제례진설의 논리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 제례는 근본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행하여 졌다. 제례의 의례 구조는 죽은 자인 조상과 삶의 공간에 있는 후손인 집례자에 의해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반복하여 진행하게 된다. 제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신주의 제작, 조상을 대상으로 한 제례 시기의 결정과 절차 등 의례화의 과정에 천원지방(天員地方)의 우주 구조론과 음양오행론의 우주 질서론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상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례의 외형적 정형성인 진설에 주목하여, 그 속에 나타난 사상적 배경과 상징체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례 진설의 상징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례의 진설에서 제수(祭需) 품목을 동물성 제물과 식물성 제물

로 구분하여 상징화하였고, 진설 위치의 결정에 있어서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각 생물의 변화과정을 생장수장(生長收藏)으로 상징화하여 대비시켜 진설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제례진설의 공간구조와 방위개념에서 조상신과 집례자의 관계가 대대(對待)의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설정은 단순히 음식을 배치하는 관점이 아닌 조상신과 집례자로 대별되는 사후세계의 공간과 현세의 공간이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교 철학적 지식을 통해 제례진설의 논리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년이라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공간변화를 집례자의 관점에서 조상신에게 고(告)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상의 공간구조와 집례자의 공간구조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반(飯)과 갱(羹)의 위치가 일반적인 배열과 반대로 진설되었던 점이나, 중앙부의 짐승배치가 좌측에서부터 우모린의 배열로 진설된 점. 그리고 앞서 진설을 통한 사시의 배치에서 좌기하는 우주공간을 표현하여 설명하였던 점 등이 모두 제사상의 진설과 공간의 상징구조가 조상신을 위해 집례자가 영접하는 관점에서 의례적 공간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제례의 진설은 죽은 자와 산 자가 시·공간적으로 소통하게 하는 중요한 의례적 도구로서 상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제례진설에서 논의되고 있는 치킨, 피자, 바나나, 수박 등의 제물에 대한 진설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대상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제물이 제물로서의 기능적 역할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시·공간적 이해의 상징성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대의 제물은 시·공간적 변화의 과정에서 대상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그 위치가 결정되고 진설하는데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1] 이숙인, (2006), “『주자가례』와 조선 중기의 제례 문화 - 결속과 배제의 정치학 -”,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2호.

- [2] 이경아, “禮에 나타난 象徴의 表現의 意味 分析 -眞性李氏 不遷位祭禮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82.
- [3] 변태섭, “韓國古代의 繼世思想과 祖上崇拜信仰”, 역사교육 3집, 역사교육연구회, 1958.
- [4] 야마다 케이지, 김석근 편역, 『朱子の 自然學』, 통나무, 1998.
- [5] 김상혁, 「의기집설의 혼천의 연구」,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2002.
- [6] 이철영, (2007), 「한민족의 전통적 생사관에 관한 연구: 음양오행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박정윤, (2001), 「陰陽五行說의 成立과 그 理論의 배경 -春秋·戰國時代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 [8] 임채우, (2014), 「주역 음양 관계론의 정합성 문제」, 『동서철학연구』, 제72호.
- [9] 최영진, (1989), 「易學思想의 哲學的 探究: 『周易』의 陰陽對待의 構造와 中正思想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학위논문.
- [10] 김영목, (2001), 「陰陽五行思想의 存在論的 考察」, 충남대학교 대학원.
- [11] 채병윤, 『인간과 오행』, 집문당. 1997.
- [12] 배영동, (1999), 「안동지역 일상음식과 제사음식의 비교」, 『民俗研究, vol. 9』.
- [13] 김미영, (2008), 「조상제례의 일상성과 비일상성」 『비교민속학』 35집, 비교민속학회.

**이 철 영(Chul-Young, Lee)**



-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문학박사)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문학석사)
- 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일생의례, 상·제례학
- E-Mail : welldying88@naver.com

**박 채 원(Chae-Won, Park)**



- 현재: 협동조합 사람중심정책연구소 이사장
-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박사)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장례복지, 장례의례, 장사행정
- E-Mail : pcw9806@daum.net